

## 기획의 말

김정희(서울대학교)

파리는 중세 이후 천 년간 프랑스의 중심이자, 비교적 최근까지도 세계의 중심이었다. 루이 14세 시절 권력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잠시 베르사유에 그 역할을 내어준 때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실험이 파리를 무대로 하여 펼쳐지면서 자연스럽게 파리는 혁신적인 사고와 새로운 감각이 만들어지고 퍼져나가는 문명의 진원지로서 조명되어왔다. 이 같은 면모는 문학 영역에서도 여실히 나타나, 파리는 중세 이후 많은 문예사조들이 출현하고 만방으로 흘러나간 도시로 자리매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학과 파리의 관계는 단순히 예술적 실험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물리적 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문학은 늘 시대의 첨단에 서 있는 파리에 대한 묘사와 비판적 성찰의 주체로서도 이 도시와의 연을 이어왔거니와, 파리를 공간적 배경으로, 나아가 파리를 문학적 주제로 삼은 흥미로운 작품들이 적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바로 그러한 문학작품에 대한 글들을 특집으로 모아보았다. 모두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특집 논문들은 이성의 빛이 환히 비추던 18세기 파리의 그늘로부터 시작하여 한편으론 자본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또 한편으론 사회혁명이 소용돌이치던 19세기의 파리, 초현실적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20세기 초 파리를 거쳐 인간이 철저히 소외되는 현대문명도시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각 시

대가 만들어낸 파리의 신화와 환상, 그리고 그 뒤에 은폐된 현실과 초현실을 탐색하고 있다.

「계몽주의 정신이 그린 파리」(이영목)는 메르시에의 □파리 풍경□을 대상으로 형법체계와 그 개혁에 관련된 주제를 통해 문명과 야만,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이 서로 분간할 수 없이 뒤섞여 있는 곳으로서의 파리를 드러내 보인다. 「□잃어버린 환상□□도시의 습득」(정예영)은 발자크의 □잃어버린 환상□의 분석을 통해 도시의 기호를 해독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개시키기에 파리는 도시가 얼마나 적합한 기능적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서 「파리 1848년 봄」(오영주)은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과 야망과 혁명의 도시라는 파리의 낭만적 신화를 해체시키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테스노스의 □자유 아니면 사랑을!□과 초현실적 도시의 파리」(오생근)는 우울한 도시인 혹은 작가의 환각과 어두운 내면세계가 투영된 파리의 초현실적 풍경을 통해 죽음과 폭력의 도시로 은유된 파리를 추출해내고 있으며, 끝으로 「파리 메트로폴리텐」(김정희)은 현대화된 도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에서 알제리 농촌 출신 이민자가 겪는 좌절을 통해, 인간을 위해 발전해왔고 발전해나갈 문명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인간과 대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파리를 보는 눈은 시대마다, 작가마다 다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이 바라보는 파리의 모습, 화려한 외관 아래 존재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파리, 개인의 내면이 투영되는 파리 거리 모습들은 모두 암울하다. 예술의 도시로서 파리의 찬란함은 바로 이러한 암울함을 예리하게 파헤쳐 드러내 보인 문학에 일부 근거하고 있는지 모른다.